

발행인: 정진석 | 편집: 천주교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 | 주소: 서울시 중구 명동 2-1 가톨릭회관 618호 | 가톨릭 인터넷 굿뉴스: www.catholic.or.kr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마태 25,23)

입당송 예레 29,11.12.14 참조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재앙이 아니라 평화를 주려 한다. 나에게 기도하면 너희 기도를 들어 주고, 내가 너희를 쫓아 보낸 모든 땅에서 너희를 다시 데려오리라.

제1독서 잠언 31,10-13,19-20,30-31

화답송 시편 128(127),1-2.3.4-5(◎1ㄱ 참조)

◎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모두 행복하여라.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이 모두, 그분의 길을 걷는 이 모두! 네 손으로 벌어들인 것을 네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
- 네 집 안방에는 아내가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네 밥상 둘레에는 아들들이 올리브 나무 햇순들 같도다. ◎
-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께서는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어, 네 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하시리라. ◎

제2독서 1테살 5,1-6

복음환호송 요한 15,4ㄱ.5ㄴ 참조

◎ 알렐루야.

-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물리라. 내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

복음 마태 25,14-30〈또는 25,14-15.19-21〉

영성체송 시편 73(72),28

하느님께 가까이 있음이 저에게는 좋으니이다. 저는 주 하나님을 제 피신처로 삼으오리다.

사진 목상

부들이 씨앗들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 다ぶ진 몸을 터뜨립니다. 터지는 아픔은 생명을 널리 퍼뜨리기 위한 것이니, 한편 고통일 수 있지 만 송고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이런 고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 사진: 황인선 바르나바

기쁨과 소명

박성칠 미카엘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사무처장



하느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들은 기쁨의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자기가 맡은 일을 하기 싫은 노동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성가시고 하기 싫은 힘든 노동이 아니라 매사가 기쁜 일일 뿐입니다.

노동이 빵을 구하기 위한 직업과 관련이 있다면 일은 소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일은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있고 기쁨으로 그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을 합니다”(요한 5,17).

사제로서 살아가는 것도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직업이 아니라 소명(召命)을 사는 일입니다.

기쁨으로 사제직을 살아가는 신부들은 보기에도 좋습니다. 기쁘게 미사를 봉헌하고, 기쁘게 성사를 집행하는 사제들은 아름답습니다.

그것이 사제들이 일상에서 해야 할 작은 일들입니다. 그 작은 일에 충실한 사제들을 교우들은 좋아할 것입니다.

돌아가신 마더 데레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부터 시작되는 사람은 작은 일들이나 자질구레한 일들도 귀찮아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하게 합니다. 작은 일에 충실하다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작은 일에 충실하십시오… 하느님께 사소한 것이라 없습니다.”

오늘 복음의 비유 이야기에서 주인은 자기 재산을 사람들에게 맡겨 줍니다. 사채놀이하며 고리대금업자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알맞은 은총을 나누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각자 하느님 은총의 관리자들입니다.

오늘 복음은 하느님 은총이 어떻게 해서 풍요롭게 되는

지 그 비결을 알려줍니다. 우리들에게 맡겨진 작은 일을 기쁘게 하고 충실하게 하는 것이 그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일에 충실했으니 이제 내가 더 큰 일을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자, 오십시오. 와서 여러분의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눕시다!”

하느님 은총은 그것을 고맙게 받아들일 때 점점 더 풍요로워집니다. 하느님 은총은 그것을 자기 것으로만 움켜잡지 않을 때 더 풍요로워집니다. 하느님 은총은 그것을 기쁨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점점 더 풍요로워집니다. 이것이 하느님 은총의 신비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작은 일에 충실하고 그 일을 기쁨으로 하는 것이 기본일 것입니다. 기쁨이 없다면 하느님께서 맡겨 주신 작은 일에 결코 충실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언제나 하느님의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자신을 잊고(發憤忘食 발분망식),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니 기쁨 가득하여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樂而無憂 낙이무우).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간장종지

더디 자란다고 재촉하면
그 짐승 빨리 자랍디까? 죽어버리지.

더디 익는다고 다그치면
그 곡식 빨리 익습니까? 말라버리지.



자식 농사라고 무엇
다르겠습니까…

말씀의 이삭

인생을 낭비한 죄

오정희 실비아 | 소설가



교 랑스 영화 ‘뻬뻬옹’은 탈옥죄수의 실화에 바탕을 두고 제작되었다.

살인누명을 쓰고 종신수로서 지옥보다 더 끔찍한 곳이라는 기이이나의 감옥에 수감된 주인공은 탈옥에 실패하여 독방벌을 받게 된다. 어둠과 허기와 공포로 착란상태에 빠진 그는 비동사몽간에 심판자의 앞에 서게 되는데 심판자는 그에게 비록 살인죄인은 아니라도 인생을 낭비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준엄한 판결을 내린다. 영화를 본 사람들 중 누군가는 끝내 탈출에 성공하는 그의, 자유를 향한 의지와 집념에 전율하며 용기를 얻기도 하였고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탈옥을 감행한 그가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다가 병사했다는 에필로그에 그 어떤 드라마틱한 영웅적 후일담보다 더 강한 감동을 느꼈고 누군가는 ‘인생을 낭비한 죄’라는 한마디 대사로 이 영화를 기억하게 되었다. 나 역시 이 대사를 때때로 떠올리며 나태한 삶의 태도를 아프게 돌아보곤 하였다.

특정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와 삶에 어떤 뜻이 숨어 있다고 믿고 있다. 아니면 이 세상살이에서의 관계와 만남과 태어남과 죽음의 신비를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뜻있는 존재’라는 의미는 어찌면 희망이며 삶에의 강력한 동기부여이기도 할 것

이다. 때문에 분명히 자신만의 뜻으로 주어진 어떤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열심히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데 따른 자책과 자기비하는 때로 자신에게 공격의 날을 들이대고 괴롭히기도 한다. 불꽃처럼 뜨겁고 치열한 삶을 원하면서도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 전전긍긍하며 헛되이 보내는 날들, 강한 열망과 높은 목표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내일을 담보로 한 유예일 뿐 권태롭고 남루한 일상의 되풀이임에 절망하기도 한다.

인생이라는 이 대단한 프로젝트에서, 일생의 계획은 거창해도 하루하루는 물처럼 손가락사이로 덧없이 새어나가며 너무도 시시하게 흘러가는 것이다. 주머니속의 몇푼의 돈을 잃는데는 민감해도 보다 본질적인 것, 즉 영혼이나 정신을 좀먹고 황폐하게 하는 것에는 무감각하게 마련이다. 무심히 걷다가 치명적인 장애물에 발이 걸려 멈춰서며, 타성에 젖어 나태하게 살아가는 내 앞에 공허하고 섬뜩하게 입별리고 기다리는 심연을 본다. 내 발을 걸어넘어뜨린 것은 바로, 내게 주어진 잔을 다 비워야 하고 주어진 길을 다 달려야 하며 힘과 열정과 내가 받은 인생의 탈렌트를 남김없이 다 쓴 후에야 비로소 해방이 이루어지고 하느님 으로부터 초대받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자랑스럽게 마치게 되리라는 준엄한 경고일 것이다.

모든 창조물과의 평화 35

건강한 논! 건강한 인간!

얼마 전 우리나라 창원에서 ‘환경올림픽’이라 불리는 ‘람사르(Ramsar) 총회’가 ‘건강한 습지, 건강한 인간(Healthy Wetland, Healthy People)’이란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물에 대한 과도한 사용으로 인류 복지와 환경이 위협받고 있음을 확인하고 ‘물 격차’를 줄이기 위해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이미 파괴된 습지를 복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결의문 가운데 ‘논 습지 결의

문’이 포함되어 논이 식량 생산지뿐만 아니라 ‘생물 다양성의 보고(寶庫)’라는 인식전환과 협약 당사국은 비료·농약사용을 줄이는 농업 정책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논 습지는 1988년 135만8천㏊에서 2007년 107만㏊로 지난 20년 동안 28만8천㏊(전체 논의 21.2%)나 줄었습니다. 건강한 습지인 ‘생명농업 논’을 지키는 일이야 말로 이제 우리의 건강 지킴이 됩니다!

이웃에 사랑을, 누리에 하느님을!

우리는 오늘 연중 마지막 주일인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한 주간 앞두고 마흔한 번째 평신도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종들이 해야 할 뜻은 저마다 능력에 따라 맡겨진 ‘탈렌트’를 가지고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 누구에게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능력에 맡는 일을 맡기십니다. 세례와 견진성사로 우리를 당신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소명은 무엇보다도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마태 5, 48)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와 성사 생활을 충실히 하며 각자 자신의 삶에서, 가정과 이웃과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생활을 통해 이 복음을 실천함으로써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곧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수행해야 할 사도직입니다.

그러기에 얼마나 성실하게 이 사명을 다해나가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뜻이고, 지상 여정을 끝냈을 때 우리 각자가 하느님 앞에서 셈해야 할 과제입니다.

많은 교우들이 자발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여 교회를 세웠고, 목숨까지 바쳐 가며 신앙을 지킨 신앙 선조들의 후예답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자신의 사도직을 개인적으로 묵묵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한 주간 앞둔 연중 제33주일을 ‘평신도주일’로 지내는 것은 바로 우리 교우들이 주님께 받은 자신의 ‘탈렌트’를 불리기 위해서이며, 이는 곧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의식을 새롭게 하고 그 사도직을 촉진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조직을 갖춰 지속적으로 살려나가기 위해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끝난 지 3년 뒤 1968년에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전국의 각 교구에서도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세워져 평신도 사도직을 촉진하는 일을 해왔고 올해 우리 교회는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설립 40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2009년 5월 6일은 103위 한국 순교성인들의 시성 25주년 은경축입니다. 1984년 이날, 우리는 ‘이 땅에 빛’을 비추어야 할 우리의 사명을 다짐하면서 하느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동안 우리 중에는 103위 성인 성녀들을 허락하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시성의 참뜻을 깨달아 복음화에 앞장서온 분들이 참으로 많고, 이제 그 성과 또한 500만 신자를 넘어서서 인구 대비 20%의 복음화를 목표로 삼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가 사도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각오와 열정을 다시 한번 불태웠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 왔는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피를 흘리면서까지 순교할 것을 강요하는 세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피를 흘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순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백색의 순교’입니다. 그것은 곧 고난을 겪게 될 때마다 그 고난을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져야 할 십자가로 기꺼이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가정 안에서부터 실천하자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곧 삶의 집을 하느님의 말씀 위에 짓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을 가르치고 배우는 사랑의 학교입니다. 곧 신앙의 터전인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그리스도인 가정이야말로 우리 시대를 위한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가정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막중한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은 복음화의 훌륭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은 곧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탈렌트’를 불리는 것이요,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땅의 얼굴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실천할 때, 온 누리에 하느님의 사랑이 퍼져 나가고 마침내 참된 평화가 깃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주소: 중구 명동 2가 1번지 가톨릭회관 510호 / 문의: 727-2013(<http://clak.or.kr>)

소식

오늘(11월16일)은 제41회 ‘평신도 주일’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11월23일(일)은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강연회

주교회의 소공동체 소위원회는 세계적인 소공동체 전문가 호세 마린스 신부 팀을 초청하여 강연회를 갖습니다.

- 대상: 소공동체에 관심 있는 모든 분(사전신청 없음)
- 때: 11월22일(토) 오후 2시~6시
- 곳: 명동성당 문화관 꼬스트홀 / 문의: 460-7631

‘생명윤리관련 국제윤리규범과 가톨릭 교회의 생명문화’ 심포지엄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는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와 공동으로 ‘생명윤리관련 국제윤리규범과 가톨릭 교회의 생명문화’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갖습니다.

- 때, 곳: 11월22일(토) 오후 1시~6시,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 문의: 727-2350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세부주제	발제
뉘른베르크 선언, 헬싱키 선언	구인희(가톨릭대 교수)
벨몬트 보고서	구영모(울산대 교수)
유네스코 생명윤리 보편선언	맹광호(가톨릭대 명예교수)
유럽연합 생명윤리 가이드라인	진교훈(서울대 명예교수)
국제의과학단체연합회 윤리지침	최경석(이화여대 교수)

제1회 가톨릭 시니어 아카데미 졸업 작품 발표회

사목국 노인사목부 ‘가톨릭 시니어 아카데미’에서는 2년 과정을 마무리하는 배움의 결실로서 제1회 가톨릭 시니어 아카데미 졸업 작품 발표회를 개최합니다.

- 주제: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1코린 1,4) / 문의: 727-2118
- 때, 곳: 11월20일(목) 오후 7시~9시, 명동성당 문화관 꼬스트홀 / 내용: 각 두레별 전시, 발표 및 공연

가톨릭 유아교육 담당교사들을 위한 생태월례강좌 7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는 가톨릭 유아교육 담당교사(40여 명)를 대상으로 생태 월례강좌를 실시합니다.

- 주제: 알고 먹어요! GMO / 강사: 최준호
- 때: 11월22일(토) 오전 10시~12시 / 문의: 727-2283
- 곳: 명동성당 교육관 305호(회비: 1만 원)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마리아의 종 수녀회	11. 23. 14시	돈암동 분원	010-3065-8221
살레시오 수도회	11. 22-23.(1박2일)	대림동 공동체	831-3068
성모 영보 수녀회	11. 23. 14시	과천 본원	011-9920-9423
성심 수녀회	11. 22, 16~23, 17시(폐장)	예수마음배움터(파주)	010-9562-3339
아씨시의 프란치스코 전교수녀회	11. 23. 14시	수원 본원	010-5313-0241
오순절 평화의 수녀회	11. 23. 14시	다락방 공부방	011-9731-0283
원죄 없으신 마리아 교육선교수녀회	11. 23. 14시~18시	정릉 수련소	010-5247-8913
착한 목자 수녀회·관상 수녀회	11. 23. 14시	노유동 수녀원	010-2871-8805
천주교 서울 국제 선교회	11. 22. 14시	사당 5동성당	749-4596
천주의 성 요한 수도회	11. 22. 14시	광주 수도회 본원	010-7169-8427

천주교 서울대교구 전화번호 안내: 가톨릭 인터넷 뉴스 홈페이지(www.catholic.or.kr)에 서울대교구 및 산하단체 전화번호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기억할 사제와 묘소

- 11월19일 손성재 야고보 신부(50세) 1927년, 용산

서울대교구 소공동체 세미나

서울대교구 사목국에서는 세계적인 소공동체 전문가 호세 마린스 신부 팀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갖습니다.

- 대상: 소공동체에 관심 있는 사제, 수도자, 평신도 지도자
- 때, 곳: 11월17일(월)~20일(목) 오전 10시~오후 4시, 사목센터 2층 대교육관 / 문의: 727-2062, 3 사목국 일반교육부

11월 구역(반)장 월례연수 / 주제: 대림과 성탄

	오전 10시30분	오후 2시
11월17일(월)	불광동성당(지구자체)	
11월18일(화)	신내동성당	명일동성당
11월19일(수)	중곡동성당	
11월20일(목)	대방동성당	
11월21일(금)	목동성당	명동성당(가톨릭회관 3층)

천주교 서울대교구 직원 채용 공고

서울대교구 비서실 직원 모집

-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PC(한글, 엑셀) 가능한 여교우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주임신부추천서
- 11월20일(목)까지 방문 및 우편접수 / 전화문의 사절
- 주소: (우 100-809)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번지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무처 / 제출서류 반환 안 됨

동대문성당 관리인 모집

- 대상: 50대 후반,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방화관리자 시설물관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11월22일(토)까지 접수
- 서류: 이력서, 교적사본, 주임신부 추천서, 자격증 사본
- 문의: 2238-7172(제출 서류 반환 안 됨, 면접은 개별 통보)

대림동성당 사무장, 사무원, 관리인 모집

- 대상: 사무장·사무원 -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PC(한글, 엑셀) 및 회계 가능한 분 / 관리인 -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방화관리자 시설물관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서류: 이력서, 교적사본, 본당신부 추천서,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11월21일까지 우편 및 방문 접수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1동 919-38 / 문의: 835-1814

서울보훈병원성당 여사무장 모집

- 대상: 25세 이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파워포인트 · 그래픽 프로그램 활용자, 원만한 인간관계 소유자
- 서류: 이력서, 세례증명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주임신부 추천서 / 11월23일(일)까지 접수
- 문의: 487-2235(제출 서류 반환 안됨, 개별통보 후 면접)

평화화랑: 오순자 작품전

평화화랑은 ‘오순자(마리안나, 역삼동성당) 작품전’을 11월19일(수)~25일(화)에 전시합니다. / 문의: 727-2336

알림

교구청 기관과 단체

11월 순교자들의 시복시성 기원미사

- 접전 및 강론: 김인환 신부(글라렛 선교수도회)
- 때, 곳: 11월18일(화) 오전11시, 명동성당 지하 소성당 / 문의: 2269-0413 순교자현양회 사무국 '성모칠고회' 모임(노인복지위원회)
- 대상: 노인을 위한 영성과 복지에 관심이 있는 20~35세 이하 미혼 여성 / 문의: 766-7370
- 때: 11월22일(토) 오후2시~5시(매월 1회 이상)

경찰서 유치장 사목 봉사자 모집

- 대상: 유치인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 전달에 관심 있는 자원봉사자(영세·견진한 60세 이하의 교우) / 723-9471 경찰사목위원회
- 홈페이지: www.catholicpolice.or.kr

中國語彌撒(중국어 미사)

- 때, 곳: 11월23일(耶穌基督普世君王節)부터 매주 (일) 11시, 글라렛 수도원(전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6번 출구 200m터) / 743-6031, 010-7518-1188 張立德神父(주최: 노동사목위원회)

교구 산하 기관과 사도직 단체

여성연합회 월례회(문의: 778-7543)

- 때, 곳: 11월25일(화) 10시, 가톨릭여성연합회관 필동
- 미사: 민병덕 신부 / 대상: 회원, 아태 총회 봉사자
- 한국교회사연구소 후원회 미사
- 때, 곳: 11월21일(금) 11시30분, 명동성당 지하 소성당 / 756-1691(내선 1번) 한국교회사연구소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영재아카데미 학생 모집
- 대상: 피아노, 성악을 전공한 초등학생, 중고 등학생 / 문의: 393-2213~5(오디션 문의)

- PBC 평화방송 평화신문 초청 부산기톨릭합창단 정기 연주회
· 때, 곳: 11월19일(수) 오후 8시, 명동성당
· 문의: 019-535-5858(cafe, daum, net/B, c, c)

- 서울가톨릭간병인회 간병인 양성 교육 및 모집
· 때, 곳: 11월25일(화)~27일(목) 9시30분~17시, 가톨릭회관 205-1호 / 928-7185(선착순 30명-한불안 A됨)
· 회비: 7만원/우리은행 1005-701-131505 (제)천주교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 종합심리검사: 다양한 검사를 통한 성격의 객관적 이해
- 전문심리상담: 개인면접, 심리치료 및 상담(유료)
- 문의: 726-0771(www.jseen.or.kr) 전진상 전화무료상담

- 2009학년도 전기 가톨릭대학교 특수대학원 신입생 모집
· 모집 부문: 행정대학원, 문화영성대학원, 경영대학원 / 11월28일(금)까지 접수(토·일 휴무)

- 홈페이지: www.cuk.ac.kr(우편 접수 가능 - 부전 성심교정) / 문의: 2164-4857, 8(14시~22시)

- 대전 아프리카 선교후원회 기도모임(문의: 757-1416, 7)

열린 기도모임	내용: 말씀, 묵상기도와 찬양, 은혜의 시간, 애수, 미사 때: 매주(목) 12시30분~17시30분 곳: 가톨릭회관 7층 대강당 / 대상: 누구나(회비 없음)
월요 철야	때, 곳: 매주(월) 22시~3시30분, 철야 성당(전철 5호선 송정역 3번 출구 송정한의원 지하 1층)
성모승 2000년	때, 곳: 매일 둘째·넷째(토) 10시~17시, 철야 성당(전철 5호선 송정역 3번 출구 송정한의원 지하 1층)

시립 보라매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

- 보라매
kids
English
사업설명회
- 대상: 5~7세 유아를 둔 학부모 및 유아
내용: 영어 조기교육의 필요성, 원어민과 함께하는 체험학습(www.boramyc.or.kr)
때, 곳: 11월22일(토) 11시~13시, 보라매 청소년수련관 세미나실 / 전화접수 834-7233~4(회비 없음)

- 건강한 인터넷 선택은?
- 대상: 서울지역 인터넷 과다사용 청소년
곳: 보라매청소년상담실(전액국비지원) / 834-1355

지구와 본당

5지구 일일 피정

- 강사: 신교선 신부(미사, 치유, 면담, 고해성사)
- 때, 곳: 11월21일(금) 오후1시~5시, 북동성당
- 문의: 010-8748-3071 5지구 성령쇄신봉사회

명동성당 월요 치유 대피정

- 강사: 성직자, 수도자, 일반교우(회비 없음)
- 때, 곳: 매주(월) 오후1시30분~5시40분, 명동 성당 내 별관(미사, 강의, 치유기도, 애수)
- 문의: 017-225-6072 명동성당 성령기도회

여의도 성당 성령 기도회

- 강사: 김경모 신부(미사, 애수 예절 있음)
- 때: 11월21일(금) 오후1시 / 문의: 782-1259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등록단체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 · 후원자 월례미사

- 때, 곳: 11월17일(월) 오후2시, 신당종합사회복지관 2층 강당 / 문의: 2231-1876~9

유력종합사회복지관 11월 월례미사

- 대상: 자원봉사자, 후원자, 지역주민 / 2235-4000

- 때, 곳: 11월18일(화) 오후2시, 복지관 9층 강당

서초성심노인복지센터(문의: 582-6004, 6012)

- 주, 아간보호, 단기보호: 65세 이상 치매어르신

-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신규사업 실시

나눔의 전화(전화·면접 상담)

- 가정문제, 부부갈등, 청소년 문제, 정신건강, 위기상담 등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상담

- 매주(월~토) 10시~21시30분(일·공휴일 휴무)

- 상담 전화: 752-4411, 4413(면접 예약: 727-2250)

나자렛 성가회 후원회원과 가정회복을 위한 기도와 미사

- 문의: 391-3086, 010-9040-1857(종로구 평창동)

기도회(매주금) 14시~16시

말씀과 친구와 친구기도

미사 11월21일(금) 13시30분~16시 후원회원을 위한 감사 미사

서울 까리파스 알코올 상담센터 프로그램

- 술 때문에 고동받는 의존자 및 가족을 도움

무료상담 및 문의(내방10시~17시) / 521-2364, 2577(<http://cacc.or.kr>)

의존자 프로그램 술을 끊고 삶을 분위기 조성 및 직장인 프로그램 운영

가족치료 모임 운영: 매주(목) 오후2시

자녀 모임 운영: 매주(화) 오후7시30분

수도회

살레시오 나눔의 집 후원회 월례미사(문의: 2065-4580, 1)

- 때, 곳: 11월17일(월) 10시30분, 돈보스코센터 직업 훈련원 3층 성당(신길동) / 영성 강의: 양승국 신부

한국 외방 선교회 월례미사

- 때, 곳: 11월17일(월) 오후2시, 반포4동 성당

- 문의: 3673-2525 한국 외방 선교회

수도자들과 함께하는 성탄 전례 피정

- 때, 곳: 12월23일(화) 16시~25일(목) 13시, 성 베네딕도 외관 피정의 집(주최) / 054971-0722(회비: 9만원)

천주교 서울국제선교회 성소후원회미사

- 때, 곳: 11월24일(월) 11시, 한남동 선학원

- 문의: 749-4556 천주교 서울국제선교회

성 이나시오 영신수련 8일 피정(1.1 개인지도식)

- 때, 곳: 11월26일~12월5일, 메리워드 교육관(예수수도회) / 2085-7222, 010-6847-7222(회비: 36만원)

전교가르멜수녀회 청년대림피정

- 때, 곳: 11월29일(토) 18시~30일(일) 15시, 사직동 영성의 집 / 737-7765, 010-2646-7765(회비: 2만5천원)

노틀담 몬테소리 학교(몬테소리 특성화학교) 어린이 모집

- 대상: 3세~7세 어린이(부모 면담과 어린이 면접 후 입학) / 문의: 763-2274, 011-9932-2276

- 홈페이지(www.ndmonte.com) 참조

젊은이와 함께하는 작은 목주기도 모임

- 때, 곳: 11월21일(금) 20시~22일(토) 5시, 수원 성빈센트 드뜰 자비의 수녀회 본원(주최)

- 회비: 5천원 / 문의: 031-249-8107, 010-8833-8107

가톨릭 어린이 발레단 단원 모집

- 대상: 유치부, 초등부 어린이 / 문의: 010-4501-4161

- 곳: 서울 독립문전철역 근처

- 주최: 성 바오로 수도회(아도라라테찬양무용단)

마리아니스트 영성을 통한 하느님 현존체험 1일침묵 피정

- 주제: 다섯 가지 침묵의 생활화 / 대상: 성인(선착순 20명) / 필기도구 · 미사도구 준비(회비: 1만5천원)

- 때, 곳: 12월7일(일) 9시~17시, 마리아니스트 영성센터 / 2648-7134, 010-3311-7134 마리아의 딸 수도회

살레시오회 겨울 신앙 학교 및 6학년 졸업 피정

초등부(3-6학년) 주제: "성당이 왜 가나?"

6학년 졸업 피정 때, 곳: 1월8일~30일(8차), 살레시오 교육회관

문의: 2691-6543~4, 016-9447-0006 권선화

중고등부 주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때, 곳: 1월9일~30일(6차), 강원도 청소년 수련관

문의: 033)255-6601~2, 010-9873-9341 김옥경

알빈 슈미트 신부의 건축 작품 전시회

- 때, 곳: 11월16일(일)~23일(일), 대우 푸르지오 밸리 갤러리 / 주최: 성 베네딕도회 외관 수도원

- 후원: 주교회의 문화위원회 / 문의: 031)8005-3701

예수회 서울 피정

- 주제: 일상에서의 영적 위로와 실망(손우배 신부)

- 때, 곳: 11월19일(수) 13시30분~16시30분, 서강 대 이나시오 성당 / 718-3896, 7개인 킷 카페

1318 중고생 피정

- 때: 1차 1월5일(월)~7일(수), 2차 1월9일(금)~11일(일) / 문의: 054)973-4835, 011-542-4835

주최: 연화리 피정의 집

항심기도(침묵) 3박4일 후속 심화 피정

- 때: 11월27일(목)~30일(일)

- 개인 침묵 피정 가능(www.setoncent.or.kr)

- 문의: 041)733-2992~4 씨튼 영성의 집

젊은 여성을 위한 1일 피정

- 주제: 얼굴이 되신 하느님(대상: 대학 재학 이성 30세 미만) / 019-360-5649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사도회(msmari2000@hotmail.com)

- 때: 11월23일(일) 10시~17시 / 회비: 1만원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후원회 미사와 영성강좌

- 내용: 미사, 영성강좌(목마르지 않을 영적 샘)

- 강사: 박영호 신부 / 793-2070, 011-749-1670

- 때, 곳: 11월17일(일) 10시30분~12시50분, 한남동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원(구 단국대 옆)

타교구와 기타 단체

성가복지병원 경력간호사 모집

- 기간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병원임

- 문의: 010-4353-8678 성가복지병원 간호과

삼성산성지 성모송 2천번 기도회

- 지도: 송광섭 신부(면담과 미사)

- 때, 곳: 11월17일~24일(월) 9시30분~17시, 삼성산 피정의 집(주최) 대강당 / 874-6346, 011-277-0317

작은 예수회 치유 기도회

- 미사: 박성구 신부(치유: 이명환, 김명희)

- 때, 곳: 매주(화) 13시~17시, 작은 예수회관(전철 5·7호선 군자역 6번 출구, 농협 지하) / 016-309-0048

삼성산 은인 초청 갑사 피정

- 강론: 오웅진 신부, 차동엽 신부

- 때, 곳: 11월21일(금) 9시30분~17시, 삼성산 피정의 집(주최) 대강당 / 874-6346, 011-277-0317

한국교회사연구동인회 2008년 송년미사

- 때: 11월21일(토), 오후 4시

- 곳: 한국교회사연구소 회의실(평화방송 4층)

- 문의: 756-1691 / www.history.re.kr

젊은이 묵주 찬양의 밤(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 내용: 미사, 묵주기도, 찬양, 나눔

- 때, 곳: 11월24일(월) 오후7시~9시30분, 가톨릭회관 7층 대강당 / 6253-3373, 019-470-2416

찬양(악기, 보컬) 모집 중

작은 예수사랑음악원 치유 일일 찬양 피정

- 대상: 찬양을 사랑하는 모든 교우(식사 제공)

- 강사: 에프렐 수녀(성 바오로 병원) / 018-330-3283

- 미사: 박성구 신부(음악: 작은 예수사랑음악원)

- 때, 곳: 11월26일(수) 13시~18시, 능동 작은 예수회관(전철 5·7호선 군자역 6번 출구, 농협 지하)

제16차 어린이 성령학교

- 대상: 현재 초등 3~6학년(지도: 전제덕 신부)

- 때, 곳: 1월19일(월) 10시~20일(화) 15시(1박2일), 성령쇄신 봉사회관 3층(신림동, 전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에서 5528·6512·504·5535번 타고 신림8동사무소 하차) / 866-6345

- 회비: 4만 원(교재·간식·점심 포함)

- 준비물: 필기도구, 묵주, 미사책, 개인물통

- 예약 접수: 국민은행 404601-01-177300 김필남

- 문의: 010-8332-7334, 010-6254-9549

제주 성 이시돌 피정센터(문의: 773-1455)

- 제일미사, 삼피소 은총의 동산 기도회

- 제주 피정 말씀, 종교해설자, 자연과 함께, 성지순례

- 12월1일~9일, 12월30일~1월1일, 1월3일~5일, 1월18일~20일

- 삼위일체회 피정 때, 곳: 11월17일(월) 9시30분~12시30분,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강사: 조성태 신부(설레시오회)

서울대교구 출판기관인 가톨릭출판사에서 매월 셋째 주 '문화마당' 란을 통해 신간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말씀이신 하느님의 지기(知己)가 되세요!



당신의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기

The word among us 저음 | 가톨릭출판사 옮김
128×188 | 각 권 96쪽 | 각 권 900원

와 함께라면 당신은
하느님의 참된 '지기'이자 '벗'이 됩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속속들이
알아주는 친구와 같은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공부하는 자녀에게는 한글판과 영문판을
동시에 구입해 주시면 하느님과도 사귀고
영어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내 영혼에 따스한 위로가 필요한 모든 분들께
<말씀지기>는 그분을 영원한 '지기'(知己)로
만나게 해 줄 것입니다!

행동하는 양심으로, 종용의 침묵으로

시대의 지팡이 역할을 해 오신

김수환 초기경이 말하는 나의 삶, 나의 사랑!



격랑의 한국 현대사 속에서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베풀목으로 자리매김해 오신 김수환 초기경의 삶을 그분의 말씀 속에서 따라가며 짚어 보는 책. 직접 쓰신 수필과 메모, 기도와 시, 여러 강론, 매체와의 인터뷰 등을 한데 모은 이 책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김수환 초기경의 어려운 사회 현실에 대한 고뇌와 주위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잘 보여 줍니다. 인간적 면모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김수환 초기경의 글들을 통해 김 초기경님을 직접 만나 보세요!



김수환 초기경의 신앙과 사랑 1·2

천주교 서울대교구 역음 | 154×210 | 각 권 10,000원

전교용 도서 <왜 나를 낳았어?>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선교가 어렵고 곤란한 숙제처럼
느껴지는 신자들을 위한 책

허무와 절망에 빠진 이들의 허허로운 옆구리에 슬쩍 끼워
주는 것만으로도 기쁜 소식이 될 책입니다.
일찍이 남다른 철학적 사고 능력을 인정받았고 철학과 신학
연구에 많은 업적을 남긴 고(故) 박도식 신부의 저서인 이 책
은 참진리와 참행복을 찾는 과정에서 종교
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여줍니다.



왜 나를 낳았어?

박도식 외 저음 | 120×170 | 152면 | 4,800원

메시앙 탄생 100주년 기념 연주회 '백건우, 메시앙을 말하다'

- 입장권: R석 6만 원, S석 4만 원, A석 2만 원
- 예매 및 문의: 1577-5266



메시앙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피아니스트
백건우가 '아기 예수를 바라보는 20개의 시
선' 전곡을 연주한다. 메시앙의 피아노 명작
으로 뽑히는 이 곡은 음악사의 어법을 종동원
한 작품으로 평가받으며 피아노 곡 중에서도
난곡으로 꼽히는 대작이다. 11월30일(일) 오
후 2시30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있다.

전화예약 후 공연 당일 '본 안내문이 게재된 서울주보' 저참시 10%
할인한다(주보 미지참시 차액 지불 / 주보 1부로 4인까지 할인 가능).

연극 '아트'

- 입장권: R석 3만5천 원, S석 2만5천 원 / 예약 및 문의: 764-8760
- 공연시간: 화~금 20시 / 토 16시·19시 / 일 · 공휴일 15시·18시



의리에 살고 죽는 남자들의 우정 밑에 깔린 소
심하고 옹졸한 구석을 수다로 리얼하게 파헤
치며 웃음을 자아낸다. 인간에 대한 통찰력이
뛰어난 작품으로 세련된 유머와 상쾌한 감동
이 살아 있는 고품격 코미디의 진수를 느낄 수
있다. 정보석, 권해효 등이 출연하며 11월30
일(일)까지 대학로 SM아트홀에서 있다.

전화예약 후 공연 당일 '본 안내문이 게재된 서울주보' 저참시 20%
할인한다(주보 미지참시 차액 지불 / 주보 1부로 4인까지 할인 가능).